

전통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망 밝다

사찰조경학 학술회의 가능성 진단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은 900여 점이다. 한국은 불국사 석굴암을 포함한 10점의 세계유산이 등재돼 우리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문화의 대부분이 불교문화라고 하면서도 정작 한국의 세계유산 가운데 불교문화는 2점 밖에 등재돼 있지 않다. 한국 전통사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등재, 무엇이 필요인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이상해 교수(성균관대·前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가 '세계문화유산 등재요건과 한국의 불교사찰'을, 문동규 순천대 연구교수가 '지리산의 불교유산'을, 허준 우석대 교수가 '지리산 사찰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주제발표했다.

또, 종합토론에는 허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자 외에 현고 스님(전남문화재단 연구원 이사장), 조동주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사무관, 정기호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상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준과 준비조건 등을 소개했다.

세계유산의 등재요건은 ▷기념물, 건조물, 유적지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 ▷진

정성 ▷완전성 ▷국내외의 유사유산에 대한 비교연구·분석을 통한 대표성 ▷보존 관리 계획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해 교수는 "이 같은 요건이 충족해야 해당 문화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불교사찰을 연속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경우, 수도권·태백산 권역·계룡산 권역·지리산 권역·남도 권역 등 지역별로 분류해서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삼보사찰군, 폐사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해 교수는 "분류한 권역이 역사·

등재 추진 앞서 사찰 연구 필요 범불교계 추진위 결성도 방법

문화적 집단이고 동일 유형의 유산인지 합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절작품 ▷가치의 교류 ▷유형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연계성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 인정된다.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해당 유산의 유형과 맥락에 따른 학술·심미·문화·예술 등과 관련한 진실성과 신뢰성을 뜻한다.

이 교수는 "세계유산은 한 국가의 이미지와 품격을 제고하는데 한 몫을 한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지표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유산에 따라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성을 평가하는 바탕이다"라고 말했다.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는 전통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해 교수는 "한 국가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 국민들에게 자국의 역사·문화·자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또, 해당 유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게 만들며, 해당 유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유발해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문동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리산의 불교문화유산 내지는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사찰의 건축문화, 사상, 가람배치 등이 함께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리산 사찰 관련 제반 문화 등을 실행 등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국사찰의 전통성은 역사를 통해 입증된다. 사찰의 입지특성 등을 파악해 볼 때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등재는 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고 스님은 토론에서 "지리산권 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되 화엄사 등의 우수한 석조문화의 특성을 부각시키자"며 "지리산권 12~14세기 불교석조 문화"라고 명명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수불자연합회 최용춘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재를 보존·계승·발전시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범불교계 차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정보 공유하는 기쁨 나눠요”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재 기증운동 표어 공모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불교문화재 기증운동 관련 표어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유물기증운동은 근현대 고승대덕스님의 소장유물을 수집하는 사업이다. 유물 기증 대상은 중정스님을 비롯해 현 종회 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스님과 원로·중진스님들이다.

수집대상 유물은 스님들이 평소 사용하던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장삼 불자 죽비 도자기와 평소 도시던 원불 등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유물기증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증운동 관련 표어를 공모해 슬로건을 확정하고, 유물기증이 기부·나눔 운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자는 계획이다.

기증자에게는 총무원장스님 명의로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하고, 기증자 및 기증내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불교중앙박물관 흥선 스님은 "문화재는 개인이 갖고 있으면 개인의 향유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중단 유물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종단역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문화재 기증운동 관련 표어를 3월 10일까지 공모한다.

표어는 ▷불교문화재의 기증을 알리는 내용 ▷불교문화재의 기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내용 ▷불교문화재의 기증을 통해 민족문화의 수호하는 내용 등이면 된다. 1인당 2개씩 응모가 가능하며, 박물관 트위터: cbmuseum2001, 페이스북: www.facebook.com/cbmuseum, 팩스 (02-732-4474)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우수 표어 당선자 1인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조동섭 기자

금강대 대학원 첫 외국인 졸업생 배출

석사학위 받는 스리랑카 국적 아나로카 스님

스리랑카의 한 스님이 외국인으로는 금강대를 첫 졸업한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금강대 대학원의 첫 졸업생이다. 금강대는 "2월 24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아나로카 스님이 '유가사지론' 성문지 입출식문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는다. 스님은 대학원 첫 졸업생이다"라고 밝혔다.

아나로카 스님은 2003년 2월 한국에 왔다. 평소 대승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스님은 2002년 스리랑카에서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명년에 개교하는 한국의 금강대학교에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스리랑카의 스님 2분을 초청한다는 소식이었다.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저 없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스님은 한국에 온 첫 해에는 금강대 어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이듬해인 2004년 바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아나로카 스님은 2008년 2월 제2회 졸업생으로 금강대 학부를 졸업했다. 스님은 졸업과 동시에 그해 설립된 금강대 대학원에 진학해 이번에 금강대 대학원 석사 1호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

아나로카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은 '유가사지론' '성문지'에 관련한 것



로 국내에서는 드문 연구주제이다.

스님은 "학위보다는 학위수여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아나로카 스님은 금강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에 앞두고 있다.

스님은 "불교 텍스트를 여러 시각으로 보고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와 같은 불교 고전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를 마치고 스리랑카로 돌아 가면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학술적 교류를 이끌어 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가산불교대사림 제13권 발간

2022년까지 22권 목표, 육필 원고 토대 작업 계속

1월 2일 입적한 지관 스님의 숙원했던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 제13권이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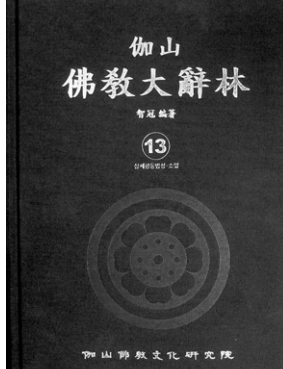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현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제13권(삼세평등법성-소밀)이 출간됐다. 가산지관 대종사 영전, 사부대중에게 이 모든 공덕을 회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한 제13권은 지관 스님 입적 직전 제본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출간을 앞둔 스님의 입적에 연구원 측은 발간일을 미뤄 스님의 49제인 2월 19일에 맞춰 내놓았다.

<가산불교대사림>은 지관 스님이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에 독자적인 불교사전이 없음을 안타까워해 1983년 편찬을 시작했다.

지관 스님은 한국 불교 고유의 사상·문화 관련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자주적·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사원을 세우고 집필을 시작했다. 지관 스님은 분책 20권, 색인·연표부 1권, 보유권 1권 등 총 22권에 15만여 표제어를 담을 계획이다. 15만 항목(표제어)은 국내외 사전 중 최다항목이다.

<가산불교대사림>에는 불교사상 및 문화 일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사전의 범주를 근본불교술어는 물론, 범불교권 국가에서 특수하게 토착화되거나 새로 창출된 술어 등도 포함했다.

편찬사업은 1982년 제1차사업기에 기초 작업을 한 이래, 2012년 현재 제5차사업기에 있다. 현재까지 200여권이 투입됐고, 앞으로 150여권이 추가 투입된다. 연구원은



지관 스님의 49인 2월 19일에 맞춰 출간한 <가산불교대사림> 13권과 스님의 육필원고



제5차사업기 종료년인 2019년까지 분책 후반부를 완간하고, 제6차사업기(2020~2022년)에는 색인 및 연표부·보유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지관 스님은 분책 마지막 권인 제20권('ㅎ' 종료 항목)까지 주요핵심술어를 집필을 완료해 놓았다. 스님의 원고에 연인 11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동원돼 사전 편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지관 대종사는

분책 마지막까지의 주요핵심술어 집필을 마무리하시고 육필원고로 남겨 놓았다. 여타 전공별·주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추가원고에 대한 유문·감수 작업만을 남겨놓고 열반에 드셨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가산 대종사가 남긴 제5·6차 사업기에 해당하는 추가집필·교정·유문·제작·출간 등 마무리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2012학년도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안내

종교의 3대 요소는 중주, 둘째는 교리, 셋째는 장엄하고 여법한 의식이며 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종교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불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과 심심미묘한 법과 장엄하고 여법한 의식이 있습니다. 불교의식은 불교학문과 더불어 수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법한 불교의식이 곧 수행의 연속이라는 걸 불제자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불자라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의식은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본 불교전통의식교육원의 설립목표는 부처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해명을 잇는데 있으며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얼이 담겨져 있는 불교전통의식을 기초부터 상주권공(범음·범패)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본 교육원의 신입생 모집은 각종 불교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승, 속, 종단, 종파에 관계없이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고 또 불·보살님 전에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음성공양인 범음·범패와 작법무, 각종 불공, 천도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입 학 안 내 §

1. 모집학과: 범음·범패 과정(상주권공)
2. 입학대상: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3. 교육기간: 2년 과정(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4. 접 수 처: 학림사 불교전통의식교육원
5. 연 락 처: 총무 010-2073-5070 / 062-365-5000
6.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62-33번지(학림사 내)
7. 제출서류: 입학원서, 수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8. 접수기간: 불기 2556년(2012) 2월 1일(음 1. 10) 수요일부터 ~ 3월 3일(음 2. 11) 토요일까지 (청강생, 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단, 시험에 통과해야 함)
9. 입학식 및 개강일시: 2012년 3월 6일(음 2. 14) 화요일 오후 12시
*강 주: 상진스님(前 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교대학 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 現 안정불교대학 법패학과 강주)
*강 사: 해광스님

§ 강의 내용 §

	1학기	2학기
1 학년	<p>◆ 기초 과정 ◆</p> <p>기 초 : 목탁잡고 치는 법, 요령흔드는 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계, 종승(전통범음)</p> <p>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육성례)</p> <p>불 공 : 삼보통정의식 축원</p> <p>시 식 : 상용영만, 화엄시식, 구병시식, 시다림</p> <p>상주권공 : 초월향, 등계, 합장계, 개계, 쇄수계, 복청계 * 막바라(요점바라 기본과정)</p>	<p>상주권공 : 사방찬, 도량계, 참회계, 헌차계</p> <p>작 법 : 천수바라, 착복(나비춤), 요점바라 등</p> <p>◆ 천도의식 본 과정 ◆</p> <p>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지장청(상단), 신중퇴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시다림</p>
	<p>◆ 천도의식 본 과정 ◆</p> <p>봉송, 회향, 공덕계</p> <p>▶ 관육태정, 관육바라, 회의제바라, 다계작법,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육건이(소리춤), 운심계(소리춤), 가지계(소리), 화청, 축원화청</p>	<p>◆ 시현회 준비 ◆</p> <p>(재제비, 사물다루는 과정)</p> <p>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범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정, 복)</p> <p>2. 작법 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회계, 범고공, 음남 등 작법실습)</p> <p>3. 특 강 : 재학생들의 요구 사항 및 점안의식, 생전예수 생활일제에 관한 의식실기 및 설명</p>
2 학년		

학림사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원장 원명 강주 상진